

2022년 5월 중국 무역 동향

한국무역협회 베이징지부

2022. 6. 20

T. (86-10) 6505-2671/3 / E-mail : beijingk@kita.net

◎ 요약

○ (수출) 5월 중국 수출은 전년 동월대비 16.9% 증가

- 상하이지역 생산이 재개됨에 따라 수출은 예상치를 두 배 이상 상회하며 반등하였고, 동남아시아의 중국 수출 대체효과는 점차 감소함
- 1~5월 10대 주요 수출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

○ (수입) 5월 중국 수입은 전년 동월대비 4.1% 증가

-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내수 소비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으며 다운스트림 소비재 중 자동차의 수입은 전년 대비, 전월 대비 모두 감소함
- 1~5월 10대 주요 수입품목 중 8개 품목의 수입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으며, 특히 3대 에너지원인 원유, 천연가스, 석탄의 수입액 증가율이 각각 55.8%, 57.5%, 80.6%로 높게 나타남

1 수출입 동향

○ 5월 수출액은 16.9% 증가한 3,082억 4천만 달러(약 362조 원), 수입액은 4.1% 증가한 2,294억 9천만 달러(약 270조 원), 무역수지는 787억 5천만 달러(약 92조 원) 흑자를 기록

- 5월 수출은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며 반등하였으며, 1~5월 누계 기준 무역수지는 2,904억 6천만 달러(약 340조 원) 흑자로 전년 대비 43% 증가

< 중국의 수출입 추이 >

(단위: 억 달러, %)

구 분	2021	'22.3월	4월	5월	1~5월 누계
수 출	33,634 (29.9)	2,760.9 (14.7)	2,736.2 (3.9)	3,082.4 (16.9)	14,025.7 (13.5)
수 입	26,865 (30.0)	2,287.0 (△0.1)	2,225.0 (0.0)	2,294.9 (4.1)	11,121.1 (6.6)
수 지	6,769	473.9	511.2	787.5	2,904.6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- 중국의 5월 수출입 총액은 5,377억 3천만 달러(약 633조 원)로 11.1% 증가했으며, 1월부터 5월까지의 누계 수출입총액·수출액·수입액은 전년 동기 대비 각각 10.3%, 13.5%, 6.6% 증가세를 보임
 - (수출) 중국 내 코로나 상황이 호전되고 중국 생산 공급 능력이 회복됨에 따라 수출은 예상치(8.0%)를 상회하였으며, 주요 수출지인 미국과 유럽의 높은 인플레이션은 중국 수출상품 가격 상승에도 영향을 주어 수출성장을 촉진하는 요인으로 작용함
 - 1~5월 10대 주요 수출품목 중 9개 품목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고, 그 외 산업 중간재인 희토류(수출증감률 93.2%), 알루미늄(74.6%)의 수출액 증가세가 가파름
 - (수입) 코로나 재확산 여파로 내수가 위축되어 5월 자동차 수입은 전년 대비 약 3만 대(금액 기준 △6%) 감소, 전월(4월) 대비 약 2만 대(금액 기준 △24%) 감소하면서 4월 중국 주요 수입품목 순위 5위에서 11위로 밀려남
 - 1~5월 10대 주요 수입품목 중 8개 품목의 수입액이 전년 동기대비 증가하였으며, 특히 3대 에너지원 가격 상승세 지속으로 원유(55.8%), 천연가스(57.5%), 석탄(80.6%)의 수입액 증가율이 높게 나타남
- 4월부터 상하이 방역봉쇄 조치로 해외 일부 수출 주문물량이 동남아시아로 이전되었으나 5월 중순 경부터 통제가 완화됨에 따라 동남아의 중국 수출 대체 효과가 감소함 *(참고) 베트남의 5월 상품 수출은 전월 대비 8.5% 감소
 - 한편, 중국은 노동집약 가공품 생산기지가 많은 ASEAN 지역의 최대 원자재 수급처인데 최근 물류 통제가 완화되면서 對ASEAN 원자재·부품 수출이 회복되었고 향후 수출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
 - 중국 내 주요 공급망의 점진적 회복, 정부의 소비 진작 및 대외무역 정책 지원 하에 해외수요는 단기간 내 주요 지역 봉쇄 이전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예상되나, 기저효과로 인해 하반기 수출증가율은 전년 대비 하향 추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

< 수출입 실적 및 전망에 대한 국내외 기관 평가 >

구분	기관	주요내용
중국	 해관총서 (海关总署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난 5개월 동안 민간 기업의 수출입 총액(비중 49%)은 11.8% 증가했으며, 외자기업의 수출입총액(비중 34.5%)은 1.4% 증가함 - 1~5월 기준 희토류, 알루미늄, 자동차(새시 포함) 품목 수출액 증가 폭이 가장 컸으며, 전년 대비 각각 93.2%, 74.6%, 60.3% 증가함 - ASEAN은 중국의 제1교역국(비중 14.8%)으로 지난 5개월 동안 수출입 총액은 8.1% 증가하였고 무역 흑자는 50.6% 증가함 - 1~5월 중국의 對EU 무역 흑자는 70.2% 증가, 對미국 무역 흑자는 19% 증가하였으며, 對한국 무역 적자는 전년 대비 21% 감소함
	 동광진청 (东方金诚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월 수출입은 봉쇄 조치 완화, 생산 재개, 물류 회복 등의 영향으로 급격히 반등하였으며, 해외 높은 인플레이션 여파로 중국 주요 수출상품 가격이 상승하여 수출액 증가세를 견인한 영향도 작용함 - 8개 주요 항만의 5월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 동기 대비 7.3% 증가하였으며 (참고. 4월 컨테이너 처리량은 전년 동기 대비 1.9% 증가), 항만 물류 회복이 5월 수출입 성장률을 높인 주요 요인이라고 평가 - 단기적으로 수출 증가율은 두 자릿수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지만 하반기 수출 증가율은 전년 대비 하향 추세를 보일 것이며, 중국 경제 성장은 국내 수요에 더 의존할 것으로 전망
	 차이신 연구원 (财信研究院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전반적으로 주요 교역국에 대한 수출증가율 상승세로 돌아섰으나, 러시아-우크라이나 사태 지속 등 불안정한 국제정세는 여전히 공급망 회복 속도를 늦추고 안정적인 수출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임 - 5월 자동차 및 기타 다운스트림 소비재, 철강 및 기타 원자재 수입량은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보였으며, 이는 국내 다운스트림 수요가 약하고 부동산 건설 경기가 여전히 위축되고 있음을 나타냄
해외	 로이터 (Reuters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월 중국 수출증가율은 예상치(8%)보다 두 배 이상 높은 16.9%를 기록하였으며, 수입도 예상치(2.8%)를 상회하며 3개월 만에 플러스 성장세로 전환됨 - 양호한 무역 실적은 세계 2위 경제 대국인 중국이 최근 몇 달 동안 전 세계 무역 시장 및 금융 시장마저 뒤흔들었던 공급망 붕괴 충격에서 벗어나 경기 회복 조짐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타냄 - 주중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의 5월 생산량은 전월 대비 증가하였으며, 5월 말 세계 최대 항만인 상하이항의 컨테이너 처리량은 봉쇄 이전의 95.3% 수준으로 회복됨
	 블룸버그 (Bloomberg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5월 블룸버그가 집계한 금년 중국 GDP 성장률 예측치는 4.5%로 공식 목표치(5.5%)를 훨씬 밑도는 수준으로 떨어졌으며, 기존 목표치를 달성하기 어렵다는 전망은 거의 확실해짐 - 중국 정부도 최근 경기 둔화를 인정하였고 3월 이후 GDP성장률 목표치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며, 올해 중국 경제 성장에서 수출기여도는 전년 대비 낮을 것
	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 (SCMP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월 수출은 대부분 상하이 등 주요 도시 코로나 재확산 이전에 발주된 주문 물량인데, 지난 두 달 동안 PMI(제조업구매관리자지수) 신규수출주문지수는 약세를 보임 - 5월 수출 반등은 일시적일 수 있으며 중국 수출이 직면한 하방압력이 높아 향후 몇 분기 동안 수출증가 폭은 전년 대비 둔화될 수 있다고 전망 - 최근 미국 정부의 중국 상품 관세 철폐 협의가 진행되는 가운데 5월 대비 수출입총액, 무역 흑자 모두 전년 대비 증가 - 미국의 관세 철폐 협의는 정치, 경제가 결합된 사안으로 논의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어 3분기까지 큰 변화는 없을 것으로 평가 - 5월 중국의 대러시아 수입은 79.6% 증가하였으나, 대러 수출은 8.6% 감소

출처: 각 기관 및 언론사 발표 (2022. 6. 10)

3 5월 국가(지역) 및 품목별 동향

- (국가별 동향) 미국(수출증감률 15.1%) 및 ASEAN(14.1%), EU(19.5%), 중남미(17.7%), 아프리카(13.4%)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으로 수출이 증가
 - 동북아경제권 내 한국(16.9%), 일본(3.7%)으로의 수출은 증가하였으나 홍콩(△9.0%)은 감소하였고, 동남아시아 대표 교역국인 베트남(2.2%) 수출은 증가 (*참고) 대한국 수출의 경우, 배터리 소재 원료(수산화리튬, 탄산리튬 등), 전기자동차용 배터리, LCD, 철강판 등의 품목이 수출증가세를 견인. 글로벌 배터리 수급난, 전기차 보급 확대 등 영향이 반영됨
 - 수입의 경우, ASEAN(5.4%), 중남미(7.6%)를 포함하여 대만(10.3%), 미국(4.0%) 등 주요 국가 및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하였으나 EU(△7.1%), 일본(△5.8%), 호주(△11.7%)로부터의 수입은 전년 동기대비 감소
 - 중국의 대한국 1~5월 누계 수입은 5.6% 증가하였으나 5월만 놓고 보면 3.0% 감소했으며, 주요 원인은 중국 내 소비 침체로 인한 승용차 및 자동차부품, 평판 디스플레이 및 센서(LCD, OLED) 수요 감소, 제조업 경기 둔화 여파로 인한 철강 등 전자재·건설기계 수요 위축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

< 5월 중국의 TOP10 수출입 대상국(지역)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수 출			수 입		
	국가별	금액	1~5월 누계증감률	국가별	금액	1~5월 누계증감률
1	미국	519	15.1	*ASEAN	324	5.4
2	*ASEAN	493	14.1	*EU	248	△7.1
3	*EU	480	19.5	*중남미	217	7.6
4	홍콩	240	△9.0	대만	196	10.3
5	*중남미	215	17.7	한국	166	5.6
6	한국	155	16.9	미국	159	4.0
7	베트남	145	2.2	일본	144	△5.8
8	일본	144	3.7	호주	129	△11.7
9	*아프리카	140	13.4	브라질	111	4.0
10	인도	99	28.9	아프리카	103	19.5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*EU, ASEAN, 중남미, 아프리카 등에는 상기 개별국가 실적 포함됨

- (품목별 동향) 수출 1위 품목인 컴퓨터 및 주변기기(비중 4.3%), 2위 의류 및 부자재(비중 3.7%), 3위 방직실 및 직물(비중 3.4%)등의 수출액이 각각 전년 동기대비 3.7%, 10.2%, 12.1% 증가

- 수입 1위 품목인 원유(비중 10.8%)는 수량은 1.7% 감소했으나 금액은 55.8%(1~5월 누계) 증가하였고, 공급 불안정에 따른 유가 상승 영향으로 5월 원유 수입액은 전년 동월(194억 달러)보다 약 158억 달러 증가
- 2위 반도체 및 집적회로(비중 10.0%)는 수량은 10.9% 감소했으나 금액은 수입단가 상승 영향으로 9.1% 증가

< 5월 중국의 TOP10 수출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1~5월 누계증감률	금액	1~5월 누계증감률	비중
1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178	3.7	4.3
2	의류 및 부자재	-	-	152	10.2	3.7
3	방직실 및 직물	-	-	140	12.1	3.4
4	반도체 및 집적회로	239억 개	△7.8	133	17.5	3.2
5	휴대폰	6,929만 대	△11.0	110	4.3	2.7
6	강재	776 만 톤	△16.2	107	27.6	2.6
7	플라스틱제품	-	-	96	15.6	2.3
8	가전제품	29,742만 대	△6.9	76	△5.9	1.8
9	자동차부품	-	-	68	6.2	1.6
10	가구 및 부품	-	-	63	1.6	1.5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<5월 중국의 TOP10 수입품목 >

(단위: 억 달러, %)

순 위	품 목	수량 기준		금액 기준		
		수량	1~5월 누계증감률	금액	1~5월 누계증감률	비중
1	원유	4,582만 톤	△1.7	352	55.8	10.8
2	반도체 및 집적회로	460억 개	△10.9	324	9.1	10.0
3	철광석 및 정광	9,252만 톤	△5.1	128	△30.5	3.9
4	식량(곡류)	1,591만 톤	△0.2	89	24.9	2.7
5	대두	967만 톤	△0.4	65	25.1	2.0
6	동광석 및 정광	219만 톤	6.1	56	11.3	1.7
7	천연가스	907만 톤	△9.3	53	57.5	1.6
8	초기 형태의 플라스틱	240만 톤	△13.9	49	△1.6	1.5
9	컴퓨터 및 주변기기	-	-	48	1.7	1.5
10	미단조 동 및 동재	465,495 톤	1.6	47	16.0	1.5

출처: 중국 해관총서

- 5월 중국의 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(PMI)는 전월 수치 47.4보다 증가한 49.6로 소폭 반등하였으며, 생산자물가지수(PPI), 소비자물가지수(CPI)는 각각 전년 동기대비 6.4%, 2.1% 상승함
 - 주요 도시의 코로나 봉쇄 조치 완화에도 5월 PMI는 3개월 연속 기준선(50)을 하회하며 경기 위축 국면 지속. 2020년 2월 우한지역 코로나 절정기 이후 3월 PMI가 급등한 것과 달리 경기회복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림
 - 5월 PPI(6.4%)는 13개월 만에 6%대로 하락하였으며, 이는 향후 제조업 경기 반등 모멘텀(성장동력)으로 작용할 수 있음
 - 5월 CPI(2.1%)는 2개월 연속 2%대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채소·과일 등 농산품과 자동차 연료 가격 상승세가 지속됨

< 최근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>

구 분	2019	2020	2021	22'3월	4월	5월	
경제성장률(%)	6.0	2.2	8.1	4.8 (1분기)	-	-	
소매판매 증감률(%)	8.0	△3.9	12.5	△3.5	△11.1	△6.7	
고정자산투자 증감률(누계, %)	5.1	2.9	4.9	9.3	6.8	6.2	
산업생산 증감률(%)	5.7	2.8	9.6	5.0	△2.9	0.7	
제조업 구매관리자지수 PMI (%)	50.2	51.9	50.3	49.5	47.4	49.6	
소비자 물가지수 CPI (%)	2.9	2.5	0.9	1.5	2.1	2.1	
생산자 물가지수 PPI (%)	△0.3	△1.8	8.1	8.3	8.0	6.4	
실업률(기말, %)	5.2	5.2	5.1	5.8	6.1	5.9	
외국인직접투자(억 \$, %)	1,381 (2.4)	1,444 (4.5)	1,735 (20.2)	212.3 (12.99)	153.8 (8.46)	133 (6.06)	
외환보유액(억 \$, 기말)	31,079	32,165	32,502	31,880	31,197	31,278	
평균 환율(위안/달러)	6.8985	6.8974	6.4512	6.3457	6.4280	6.7071	
한국의 대중국 무역 (억 \$, %) *한국 통계기준	수 출	1,362 (△16)	1,326 (△2.7)	1,629 (22.9)	156.3 (16.6)	129.4 (△3.4)	134.1 (1.2)
	수 입	1,072 (0.7)	1,089 (1.5)	1,386 (27.3)	126.2 (15.9)	123.3 (7.1)	145.1 (33.4)
	수 지	290	237	243	30.1	6.1	△11.0

출처: 중국 국가통계국, 중국 상무부, 중국 인민은행, 산업통상자원부, 한국무역협회
 주: 5월 한국의 대중국 수출입 데이터